



NGO,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로 재부상하다

[2022 매출 50대 기업 사회공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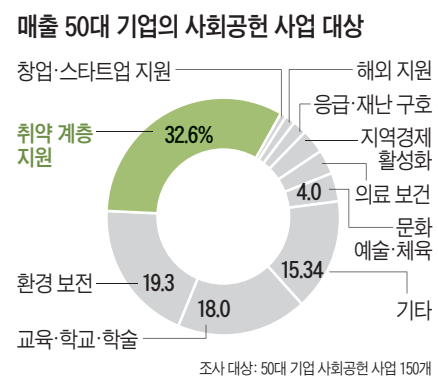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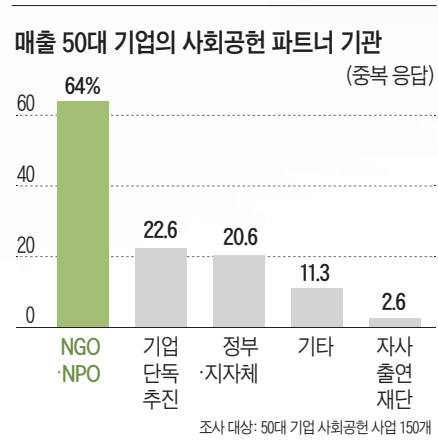
매년 6월은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즌이다. 업계에서는 CSR 부서를 ESG팀으로 통합하는 기업이 늘면서 사회공헌 위축을 우려했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2021년도 사회공헌 활동은 실제로 축소됐다.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더나은미래가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2022년도 사회공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사회공헌 예산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은 2020년 1조2641억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한 2021년 1조2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1조318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코로나 발생 전에 편성된 2020년 예산과 비교해도 541억원 더 많다. 기업들은 내년도 예산 증액을 검토할 정도로 사회공헌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됐으며, 50대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각 사별로 3개씩, 총 150개 취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0대 기업 사회공헌 예산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
NGO 협업사업 64% 차지
기업 단독 추진 감소 추세



ESG에 묻힌 CSR?… 예산은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별 사회공헌 예산을 살펴보면 LG전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 2020년 260억원 수준의

연간 예산을 2021년 410억원, 지난해 750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키웠다. 포스코홀딩스도 2020년 340억원, 2021년 495억원, 2022년 543억원으로 매년 지출을 늘렸다.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513억원에서 745억원으로 2년 새 예산을 1.4배 가량으로 증액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공헌 규모 확대의 원인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목했다. 최근 몇 년 새 업(業)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공헌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다. 청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코딩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청각장애인 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는 현대차의 '고요한택시',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고 소통하는 SK텔레콤의 'AI돌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혜진 SKT ESG얼라이언스 팀장은 "기업의 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면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고객과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다.

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일수록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김민

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할 때 사회공헌 사업도 위기를 맞게 되는데, 비즈니스와 연결돼 있으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ESG 차원에서 장기적인 사회공헌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성 있는 NGO와 협력한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역량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이다. 과거 기업 단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NGO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나은미래가 매출 50대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150개를 분석한 결과, 비영리단체를 파트너 기관으로 삼고 진행한 사업 비율이 64%(이하 중복 응답)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기업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 22.67%, 정부·지자체 20.67%, 자사 출연 재단 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발효한 '2016 사회공헌 백서' 결과와 비교하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업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로 NGO를 선택한 비율은 31.7% 수준이었다. 어정욱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 사회공헌 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먼저 비영리단체의 특화 분야나 사업 비전을 알아보고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했다. 백진 월드비전 기업파트너십팀장은 "현재 기

업들과 100여 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기업 관계자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간다"고 말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NGO는 규모나 영역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2018년 더나은미래가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흔히 '메가 NGO'로 불리는 월드비전·굿네이버스·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파트너십이 쏠려 있는 모양새였다.

최근에는 판세가 바뀌었다. 기업들은 단체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 이원기 현대제철 지속가능경영팀 책임은 "기업의 CSR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NGO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의 규모보다는 사업 수행 역량,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행 인력, 네트워크, 진정성을 본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당진복지재단,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 중이다.

LG화학은 환경·과학·사회교육 분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라이크그린(Like Green)'을 기업대체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E2면에 계속

시리아 난민 아동 '마즌'과 '빌랄' 이야기

[6월 20일 '난민의 날' 르포]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레바논 베카 지역의 시리아 난민 텐트촌에서 인터뷰한 마즌(13) 가족. 엄마가 감자 농장에서 일해 받는 일당은 50센트다. 마즌과 동생 예흐다는 통학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엄마는 인터뷰 내내 울었다.

"텐트촌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때가 가장 좋아요. 작년에 4학년이었고, 원래는 이번에 5학년이 됐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 그러면 엄마도 울어요."

지난 5월 31일(이하 현지 시각) 레바논의 베카(Bekaa) 주,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13살 마즌(Mazen)을 만났다.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 마즌은 올해부터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 한 살 아래 여동생 예흐다도 마찬가지다. 통학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간다. 마즌의 엄마가 감자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받는 일당은 50센트(약 650원). 통학 버스는 하루 20센트(약 250원)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12년째 이어지면서 난민 아동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시리아 난민 문제가 '만성 재난'의 상태로 돌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난민들을 받아준 레바논에도 문제가 생겼다. 레바논 인구는 약 600만명. 이 중 시리아 난민이 200만명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포용한 레바논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난민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일간 월드비전과 함께 레바논 곳곳을 돌며 만성적·복합적 위기에 빠진 시리아 난민 아동 문제를 취재했다.

아무도 모른다

마즌 가족이 시리아 알레포를 탈출한 건 2012년이다. 사방에서 터지는 포탄들을 피해 어렵게 국경을 넘은 가족은 감자와 포도, 올리브가 생산되는 레바논의 대표적인 농업지대 베카에 도착했다. 마즌이 2살 때 일이다.

베카의 난민 대부분은 'ITS'(Informal Tented Settlements)라 불리는 비공식 텐트촌에서 산다. 3~5개 텐트가 모인 곳도 있고 100개 넘는 텐트가 마을을 이룬 곳도 있다. 난민들은 짐세를 내기 위해 텐트촌 인근 농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한다.

마즌의 엄마는 텐트촌에서 아이 넷을 키

우며 농장 일을 한다. 땅주인에게 내야 하는 집세가 월 20달러, 발전기 주인에게 내는 전기 비용이 15달러, 매일 고정비만 60달러가 든다. 마즌 엄마가 농장 일로 버는 수입은 한 달 평균 7달러(약 9000원) 정도다.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베이루트로 갔지만 거기도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보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너무 적다.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며 사정해 외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얻는다. 빛이 계속 늘어난다. 월드비전, WFP(세계식량계획) 등에서 주는 물품이나 생계비로 버티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더 벌여보려고 마즌을 감자 농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일을 못한다며 농장주가 아이를 밀치고 때렸어요. 아이가 넘어지면서 코와 입속으로 흙이 잔뜩 들어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살기 위해 우리가 지난 11년간 어떤 고통을 참아왔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베이루트·베카·아카르·트리폴리=김시원 더나은미래 기자 E3면에 계속

- INSIDE
- E2 포스코1%나눔재단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 E3 해외긴급구호법 '인도적 지원법'으로
- E4 아모레퍼시픽재단 50년 여성의 역사를 연구하다

더나은미래 만드는 사람들

편집국장 김시원
취재 문일요 팀장
최지은·김수연·황원규 기자
백승훈 인턴기자

공익사업팀 이영은·이세화 매니저

☎문의 (02)724-7860
☎독자의견 및 제보 betterfuture@chosun.com

사회공헌도 ESG와 연계... “임팩트 측정·공시 강화할 것”

2022 매출 50대 기업 사회공헌 분석

터전에서 계속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준 LG화학 CSR팀 책임은 “교육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상 화학사는 학교·교육센터 등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전국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던 기아대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재욱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가속화하면서 사회공헌 사업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면서 “자사 출연 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단독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게 성과도 좋다”고 말했다.

문화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공헌의 핵심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강점이 있는 비영리단체와 협업이



기아는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 자립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LP)’를 NGO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 주제로 한 사회공헌 2018년 전체 9.1%에서 2022년 19.3%로 급증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 관련 사회공헌 사업, 5년 새 대폭 늘어

“환경”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 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국내 50대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150개를 지원 대상별로 분류한 결과,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의 32.67%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전 사업이 19.33%로 뒤를 이었다. 2018년 더나은미래의 100대 기업 사회공헌 분석에서는 환경 관련 사업의 비율이 9.1%에 불과했다.

이번에 조사한 기업들의 환경 사회공헌 사업은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대차는 네덜란드의 환경 NGO ‘헬시 시즈(Healthy Seas)’와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 유럽 7국에서 해양 정화 작업을 벌인다. 자원봉사 다이버들은 바닷속에 버려진 어망을 수거하고, 그물에 걸린 해양생물도 구구조한다. 수거된 어망은 재생 나일론 원사로 재활용돼 자동차 생산 소재로도 쓰인다. 기아는 지난해부터 해양 양산산부와 공동으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

업장이 있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인 잘피 서식지 복원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축구장 14개 규모인 10ha(헥타르)의 잘피 군락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팩트 측정과 공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환경 관련 사회공헌 사업이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사업 성과를 정량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원기 현대제철 책임은 “과거의 CSR은 기업 문화적 측면에서 임직원 참여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 CSR 트렌드는 크게 변하는 추세”라며 “요즘은 사회공헌 사업을 ESG와 연계해서 전개하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일회성 해양 플로깅을 했다면 이제는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정량적인 임팩트 공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사회공헌 사업 현황

기업명	대표 사업	시작 연도	파트너 기관	지난해 사회공헌 예산
SAMSUNG 삼성전자	삼성청년SW아카데미	2018	-정부·지자체(고용노동부) -기타(계열사 5곳)	4000억원
	삼성희망디딤돌	2016	-NGO·NPO(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015	-정부·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기타(중소기업중앙회)	
H 현대차	아이오닉포레스트	2016	-NGO·NPO(함께일하는재단)	724억6000만원 (2021년 기준)
	키즈오토파크	2009	-NGO·NPO(한국생활안전연합)	
KIA 기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2012	-NGO·NPO(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184억4000만원 (2021년 기준)
	초록여행	2012	-NGO·NPO(그린라이트)	
	블루카본 프로젝트	2022	-정부·지자체(해양수산부)	
SK SK하이닉스	행복GPS	2016	-정부·지자체(경찰청, 보건복지부) -NGO·NPO(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705억원
	실버프렌드	2018	-NGO·NPO(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정부·지자체(소방청, 보건복지부)	
	하인슈타인	2017	-NGO·NPO(하트하트재단)	
LG LG전자	LG-KOICA 희망직업 훈련학교	2014	-NGO·NPO(월드투게더) -정부·지자체(KOICA)	750억1000만원
	LG소셜캠퍼스	2011	-NGO·NPO(피피엘) -정부·지자체(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LG화학)	
H 현대제철	글로벌 장애청소년IT펠런지(GITC)	2011	-NGO·NPO(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부·지자체(보건복지부)	150억6000만원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2018	-NGO·NPO(KPC, 환경재단) -정부·지자체(인천시)	
	H형 빛나는 도로	2021	-NGO·NPO(당진복지재단) -정부·지자체(당진경찰서)	
LG LG화학	희망의 집수리	2011	-NGO·NPO(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0억원
	라이크그린	2020	-NGO·NPO(기아대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밤섬 생물다양성	2017	-NGO·NPO(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 롯데케미칼	희망그린발전소	2018	-NGO·NPO(에너지나눔과평화)	123억원
	소방관 마음돌봄차	2022	-NGO·NPO(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정부·지자체(소방청)	
	mom편한 음악놀이	2018	-NGO·NPO(롯데의료재단) -기타(보바스어린이의원)	
SK SK텔레콤	프로젝트 LOOP	2020	-NGO·NPO(인천환경운동연합) -정부·지자체(인천광역시교육청)	745억원
	시들봄	2019	-기타(해피에코올리언스)	
	해피해빗	2020	-정부·지자체(전국 시군구)	
posco 포스코홀딩스	행복코딩스쿨	2019	-NGO·NPO(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정부·지자체(국립특수교육원)	543억원
	장애인 자립지원	2019	-NGO·NPO(따뜻한동행)	
	두드림	2018	-NGO·NPO(한국이동복지협회)	
	재능봉사단	2013	-NGO·NPO(포항시자원봉사센터, 광양장애인복지관 등)	



현대차는 네덜란드의 환경 NGO ‘헬시 시즈(Healthy Seas)’와 유럽 7국에서 해양 정화 작업을 벌인다. 아래 사진은 LG화학이 도심 속 철새 보금자리인 한강 밤섬의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모습.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지원, 일자리까지 연계한다

[포스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거의 20년 만에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두 발로 달리기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계곡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게 로봇 의족 덕분입니다.”

고영주(44)씨는 국가유공자다.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12월, 야간훈련으로 교량 건설용 250kg짜리 철근을 옮기다가 왼쪽 무릎을 다쳤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듬해 병원에 갔더니 무릎뼈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했다. 희소암의 일종인 ‘골육종’이었다. 치료비로만 2억원을 썼다. 고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직접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전역 7년 만에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투병 생활은 계속됐다. 2015년에는 수술로 삽입한 인공관절이 부러지면서 염증이 발생했다. 다리를 살리기 위해 수술만 40차례 했지만, 결국 2017년 왼쪽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당시 정부에서 기계식 의족을 지원했지만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무척 불편했다. 고씨는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원하는 의족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면서 “보조금에 사비를 보태서 다른 의족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로봇 의족이 바꾼 일상

국내 전상·공상으로 퇴직한 국가유공자

군인·소방관 장애인 106명 지원
매년 10억원 예산 투입
최정우 그룹회장
일자리 연계 1호 직원
격려차 사업장 방문



지난 13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직원인 고영주씨를 격려하기 위해 사업장을 깜짝 방문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대상 첨단 보조기구 지원으로 로봇 의족을 받은 고영주(앞줄 왼쪽에서 셋째)씨. 그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에 지난 2021년 입사했다.

는 60만명이다. 이 가운데 12만명이 장애인이다. 고영주씨는 2008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입은 상해를 뜻한다. 보훈처가 제대 후 확인받은 골육종을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의료기 등이 제공되지만, 로봇 의족과 같은 첨단보조기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가보훈부의 보철구 지원 예산은 60억원 수준으로 개인 맞춤형 기구를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고영주씨가 로봇 의족을 이용하게 된 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공헌 사업 덕

분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부터 2020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10억원을 투입해 ▲로봇의 수족 ▲첨단 휠체어 ▲시청각기구 등을 보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립에는 퇴직해야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직들은 배제되는 시각 지대가 존재한다”며 “재단에서는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이나 군인을 준국가유공자로 판단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지난 2021년 한강구 습지 수색작전 도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육군 17사단 소속 박우근 상사로 로

봇 의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재단의 지원으로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로봇 의족 62명, 첨단 휠체어 25명, 시청각기구 19명 등 106명에 이른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맺은 3년간 업무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2년을 더 연장했다.

첨단 보조기구는 비싸다. 로봇 의족 한 대에 약 5000만원. 중형 세단 가격과 맞먹는다. 값비싼 만큼 장애인의 일상을 확 바꾼다. 로봇 의족은 기존 기계식 의족과 달리 발을 디딜 때 주변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발목을 움직이고,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 기계식 의족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로봇 의족은 인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여 다 큰 골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덕분에 언덕이나 계단도 비장애인과처럼 오르내릴 수 있고, 가볍게 달릴 수도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사용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배터리도 한 번 완충하면 일주일엔 쓸 수 있다.

국가유공자 일자리 연계까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첨단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한다. 대상자 발굴에는 재단과 국가보훈처, 의무사령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과 기구 공급사는 지원 대상자의 의학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 면담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일자리도 연계한다.

일자리 연계 1호 직원이 바로 고영주씨다. 고씨는 로봇 의족을 지원받은 이후 2021년 포스코의 자회사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했다. 현재 광양 클리닉센터에서 옷 수선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 만족도는 높다. 고씨는 “자동화 선풍기 사업도 하고 전기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을 다니기도 했는데,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 면에서 지금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고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국가유공자 직원인 고씨를 격려하기 위해 포스코휴먼스 광양 작업장을 찾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국가유공자 첨단 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입사한 고씨의 근황이 궁금했다며 한번쯤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고씨가 작업하는 수선실에서 한참을 머물며 그간의 사연과 회사 생활,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고씨는 “가족과 부산으로 여행을 자주 하는데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부산항 크루즈 1박2일권을 선물 받았다”며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 참여에 나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상의 영역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고씨는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소파에 퍼져 있고 싶지 않다”며 “주말이면 광양 중앙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만나 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수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일우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 통합’ 위해 시리아·레바논 아동 함께 돌본다

6월 20일 ‘난민의 날’ 르포

터전에서 계속

마준의 엄마는 그날 이후 아이를 농장에 데려가지 않는다. 소망은 하나뿐이다.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 가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엄마는 한 번 더 신을 믿어본다. “저는 고아였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죠. 자식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신이 허락한다면, 어쩌면 내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겠죠.”

쓰레기 줍는 아이들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취약성 평가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가정의 90%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월세와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있다고 답한 가정은 94%에 달했다. 지난 4년에 걸쳐 진행된 레바논의 경제 붕괴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시작된 경기 침체,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베이루트 폭발 사건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레바논의 물가는 3년간 400% 치솟았다.

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핀(Josephine) 레바논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베카 난민 텐트촌의 아동들은 농작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사는 난민 아동은 쓰레기를 주워 팔거나 노점상에서 채소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일부 아동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운반하거나 높은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레바논 도심 곳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난민 아동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일고여덟 살짜리부터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까지 커다란 자루를 등에 지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다. 대부분 남자 아이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꼽히는 트리폴리(Tripoli)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다. 디마(Dima) 레바논월드비전 트리폴리지역 코디네이터는 “구걸하는 아이들은 100% 시리아 난민”이라며 “텐트촌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서 구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스(Hans) 레바논월드비전 회장은 “난민 아동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중단’이라고 했다. 남아아동에게는 ‘아동 노동’이, 여자아동에게는 ‘조혼(child marriage)’이 교육 중단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



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레바논 내 시리아 아동 100만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젠가 내전이 끝나면 시리아를 재건해야 할 아이들이기에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것보다 두려운 것

지난 30일 레바논 북쪽 끝에 있는 아카르(Akkar)주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 빌랄(15)과 모함마드(13) 형제를 만났다. 아이들은 월드비전이 만든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센터에 공부하러 오는 게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할 걸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지질학도 좋고, 수학도 좋아해요.”(빌랄) “학교에서는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을 차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센터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모

함마드)

올해 1월 레바논월드비전은 ‘하다사’라는 지역 NGO와 함께 빈 건물을 빌려 에듀케이션 센터를 오픈했다. 200명의 아동이 이곳에서 수학, 과학, 아랍어, 불어를 공부한다. 통학 버스도 제공한다. 조지(George) 레바논월드비전 아카르지역 프로그램 매니저는 “센터의 목표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라며 “레바논 공교육에서는 성적이 20점 만점에 10점을 넘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센터에서 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노동이나 조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빌랄과 모함마드는 오전에 센터에 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간다. 형제의 가장 큰 걱정은 가족 이름의 ‘생활비’다.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형제는 재활용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다. 둘이 같이 열심히 주우면 하루에 1.5달러를 벌 수 있다. 빵 3개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빌랄은 “힘들게 모아놓은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도 있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맞는 것보다 두려운 건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센터가 문을 닫지 않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돼서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취재에 동행한 권정화 한국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은 “만성 재난이 된 시리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에 또 다른 재난이 더해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은 효과가 없다”면서 “특히 난민 아동의 경우 나라를 재건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영양’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샤르벨(Charbel) 월드비전 사업성과관리총괄은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레바논과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에서는 ‘사회 통합’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시리아와 레바논 아동을 함께 지원하는 것도 사회 통합 차원이라고 했다. 한스 회장은 “난민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이 아니라 ‘난민이 속한 사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카-아카르-트리폴리-레바논월드비전 제공
지난 5월 28일부터 6월간 월드비전과 함께 레바논 내 곳곳을 돌며 만성적·복합적 위기에 빠진 시리아 난민 아동 문제를 취재했다. ① 월드비전이 아카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과 레바논 취약계층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② 트리폴리의 빈민가 ‘다리위시’ 풍경.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 ③ 베카 지역 텐트촌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아동들. ④ 아카르의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인턴부한 빌랄(15)과 모함마드(13) 형제.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현황

전체 난민 수	2,000,000명
1인 월평균 임금	약 14달러
가족 월평균 수입	약 22달러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정	90%
공교육 받지 못하는 6-14세 아동	41%
공교육 받지 못하는 15-17세 아동	73%
소년(15-17세)의 아동노동 비율	28%
소녀(15-18세)의 조혼 비율	25%

출처: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취약성 평가(VASAR) 2022 보고서



“해외긴급구호법, ‘인도적 지원법’으로 개정 추진한다”

[인터뷰]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 옹호실 실장

전쟁, 지진, 기근, 가뭄...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중, 삼중으로 재난이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3억 6000만명. 지난 1년동안에만 하루 평균 17만명씩 급증했다. 글로벌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2019년 1432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036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현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적 지지를 담아낼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근거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 다루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나 정의도 규정하고 있지 않죠.” 지난 13일 만난 남상은 월드비전 세



월드비전 제공

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진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인도적 지원’의 개념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인도적 지원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활동입니다.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고 존엄성을 유지해주는 게 목적이죠. ‘대응’ ‘복구’ ‘예방’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외긴급구호법은 ‘대응’, 즉 긴급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 ‘복구’와 ‘예방’이 빠져있군요. “재난을 입은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 6월 13일자로 이재정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선 법률의 제명(이름)을 ‘해외재난

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단어를 제명에 넣어 법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 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긴급구호만 다루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재난예방과 위기경감, 재난복구와 조기회복, 만성재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라는 말로 재난을 표현했는데 개정안에는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을 유형별로 구체화해 명기했습니다. 셋째,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인류애·공평성·중립성·독립성)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등 국제사회 규범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명시됐습니다. 넷째,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가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주체는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NGO, 로컬NGO 등 다양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따로 민간 따로 하지 말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엔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NGO들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정부보다 빠르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 배우 김해자씨도 이번 법 개정을 위한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김해자 선생님은 1991년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임명된 이후 30년이 넘게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대지진, 케냐 기근 현장 등을 돌아보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돼야 더 많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셨기에 이번에 월드비전과 함께 ‘김해자의 국민청원캠페인, OUTCRY’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 오는 30일에는 월드비전과 이재정 의원

실이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정 의원과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내전으로 12년째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아동’이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서울 독산초학생이 한국 아동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해 법 개정을 청원한다. 인도적 지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에게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로힝야의 아이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홈페이지의 ‘김해자 국민청원캠페인, OUTCRY’ 페이지에 편지(14세 미만)나 서명(14세 이상)을 남겨주세요.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들의 편지와 서명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정부(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김시원 더너우에이저 기자

여성의 힘으로 큰 화장품 기업... '여성의 역사'를 연구하다

아모레퍼시픽재단 50년 발자취

- 1973** 재단 창립, 고교생·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1975** 학술 연구비 지원 시작
- 1995** '제1회 컬춰렛 선발 여대생 논문 공모전' 개최
- 2004** 여성생활문화역사 자료 정리 프로젝트 사업 실시
- 2007** 학술 연구비 공모 장기 주제 '여성과 문화' 선정
- 2012** '아시아의 美' 연구 공모 사업 실시
- 2013** 인문 교양 강좌 美 개최
- 2020** 장원 인문학자 지원 사업 시행
- 2023** '여성과 문화' 주제 연구 297개 지원, 도서 10권 발행. '아시아의 美' 주제 연구 39개 지원, 도서 22권 발행

서성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선대회장

아모레퍼시픽재단 제공

[아모레퍼시픽재단 50주년]

1924년 황해북도 개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옆에서 장사를 배웠다. 어머니는 도매상에서 등잔 기름, 머릿기름 등을 떼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어머니는 여성들이 머리 손질할 때 쓰는 동백 기름을 직접 만들어 매대에 내놨다.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소년은 품질과 신용을 강조하는 어머니 곁에서 이른바 '기업가 정신'을 배웠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소년은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다. 스물한 살 되던 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창업주인 고(故) 서성한(1924~2003) 선대회장의 이야기다. 서 전 회장은 생전에 "회사의 모태는 어머니이며, 여성들이 회사를 키웠다"고 자주 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여성용 화장품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 여성 일자리와 복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1973년에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여성 인재 육성과 학술 연구를 지원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재단이 지금까지 지원한 연구자와 장학금 수령자는 1509명에 달한다.

여성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재단의 관심은 줄곧 '인문학'에 있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뤄지던 1970년대에는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지만, 1995년 재단 정관에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을 편다'는 문장을 삭제하

50년간 1509명 지원 인문학 연구에 초점

선대회장 뜻 따라 여성 문화·복지 등 연구

앞으로 문화사업에 집중 한국 위상 높일 것



아모레퍼시픽재단 제공
2018년에는 '아시아의 美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독일·미국 등 6개국에서 온 23명의 연사가 아시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래 사진은 2019년 '아모레퍼시픽 포럼' 현장. 아시아인의 삶의 질, 미 의식에 대해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모여 소통했다.

면서 사학과 철학, 사회과학 등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김태우 아모레퍼시픽재단 사무국장은 "인문학은 중요한 연구 분야지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오랜 기간 홀대받았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신적 국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는다'는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인문학자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연구자만 지원한 건 아니다. 1995년에는 전국의 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대회 '컬춰렛(Culturette) 선발 공모전'을 개최했다. 컬춰렛은 '여성 문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 21세기 새로운 여성 문화를 창조하고 앞서가는 여성상을 상징했다. 공모전은 여대생들이 여성의 역사와 문화, 사회 진출 등에 대해 탐구하면서 진취성을 높이게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당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49.8%로 남성(52.8%)과 비슷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컸다. 대졸 남성의 경우 93.4%에 달했지만, 대졸 여성은 60%로 낮았다.

2004년까지 열린 공모전에는 여성 리더의 조건,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여성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미디어에 비친 여성의 이미지 등 여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의 논문이 나왔다. 여대생 논문 중엔 통통 튀는 내용이 많았다. 3회 대회에 참가한 조수정·조민정씨는 1990년대 TV 광고를 분석해 우수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여성을 요리 잘하는 현모양처로 묘사한 조미료 광고, 남성의 프러포즈를 받고 기뻐하는 여성을 그린 가구 회사 광고 등이 여성의 수동적 이미지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공모전 주최사인 태평양(아모레퍼시픽의 옛 사명) 광고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평가를 내렸다. 논문은 "화장품 광고는 제품 특성상 '여성'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태평양의 '라네즈' 광고는 음악이 나오자 주위 시선에 야랑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여성 모습을 담았다"며 "도전적이고 당당한 현대 여성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했다. 10년 동안 총 110편의 논문이 수상했다. 1996년도 컬춰렛에서 수상한 학생이 12년 후 전문 연구자로 성장해 재단에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재단은 2000년대에 들어 지원 주제를 문화 전반으로 넓혔다. 2007년에 시작한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여성과 문화', 2012년 런칭한 '아시아의 美' 공모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차(茶) 문화 연구, 개성상인 연구 등으로 지원 주제를 다각화했다.

'여성과 문화' 사업에서는 조선 시대 여성의 화장법과 의상, 태교 방식, 음악 취향 등 여성 문화의 뿌리까지 들여다보는 역사 연구들이 진행됐다. 화장품 기업 재단이지만, 외모지상주의에 비판을 가하는 연구도 다수 수행됐다. 예를 들면 2007년 발표된 '성인여성의 생애주기별 외모만족도, 자아 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은 자신을 대중 매체 속 이상적인 여성 외모와 비교하면서 자신 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다"면서 "건전한 외모 관리 문화를 조성해 겉모습에 투자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의 美'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만

의 미적 개념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시아 지역의 건축, 패션, 미술, 향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학술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대중서를 발간하고, 교양 강연도 개최한다. 지금까지 '여성과 문화'는 10권, '아시아의 美'는 22권의 도서로 출간됐다. 이밖에도 다양한 포럼을 열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재단 지원은 주로 젊고 유망한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성별은 가리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장원 인문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개인 연구자에게 매월 4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김태우 사무국장은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딴 연구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시간강사 등으로 일하느라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순수 학문 분야의 안정적인 학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문화예술 지원을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50년 동안 재단은 여성, 인문학, 신진 연구자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한 곳을 찾아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 영역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너미래 기자

“몸빼부터 레깅스까지... 여성은 100년 동안 ‘이런 옷’을 입었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지원한 연구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50년 동안 800편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공감을 자아내는 대목도 적지 않다. 그중 흥미로운 연구 세 개를 뽑아 소개한다.

언어로 보는 한·중·미의 美 의식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멋진 외모를 동경한다. 다만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이를 추구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르다. 특히 언어에는 미(美)에 대한 사회의 사고 체계가 반영돼 있다. '뷰티언어와 여성문화의 전이와 변이(김성제·2011)'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언어에 녹아 있는 미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노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세 나라 모두 노화를 싸워야 할 대상으로 봤다. 인류 보편적 경험인 '전쟁'으로 묘사하는 식이다. 얼굴에 팬 주름, 건조한 피부를 '적'으로



표현하고, 화장품은 적을 물리치는 '아군'에 빗댔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다. 인종이 같은 한국과 중국은 피부를 표현할 때 색채어를 자주 쓴다. '흰 피부'는 긍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반면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피부를 묘사할 때 색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더 밝은(lighter)', '더 어두운(darker)', '더 창백한(ashier)' 등 색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성들이 '파워슈타일'을 입은 이유

패션만큼 유행에 민감한 분야가 있을까. 이런 유행에도 사회문화적 메시지가 있다. '근·현대 한국 여성 복식에 나타난 여성 성 역할 변화 연구(이지현·2009)'에서는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패션에 반영된 '여성이 보내는 성평등 메시지'를 들 수 있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에는 남성들이 전장으로 나가면서 여성은 '가족을 책임지는 강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 여성들은 한복을 벗어 던

졌다. 대신 양장과 힐링한 '몸빼'가 대중화됐다. 1970년대에는 남녀 공용 '유니섹스 룩(unisex look)'으로 기존의 여성적 성 역할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980년대는 서울 주요 대학에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는 등 여성의 권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다. 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남성성과 동등한 주체임을 강조했다. 어깨를 강조하는 '파워슈타일'이나 체격이 더 커 보이는 '빅룩'이 이 시기에 유행했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사회진출이 늘면서 여성성에 대한 자신감도 강해졌다. 이에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속이 비치는 씨스루 등 몸매가 강조되는 패션이 등장했다.

여성 행복의 조건은?

"여자라서 행복해요." 2001년 한 가전 회사의 냉장고 광고에서 배우 심은하는 이렇게 말했다. 광고는 고급 냉장고를 가지면 여성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실제로 멋진 주방 가전을 가지면 여성은 행

복해질 수 있는 걸까? 2010년 발표된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분석(유경·이주일)' 연구에서는 20~60대 여성 총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성취'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다. 자신이 일궈온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자주 성취감을 느낄수록 큰 행복을 느꼈다. 연구진은 "오늘날 여성은 남편, 자녀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것을 중시하던 구시대 여성들과 다르다"며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충분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물론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 연령대 여성 행복에는 부모·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의 바른 성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60세 이상 노년기에는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욱 중요했다. 알고 넓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가족, 친구들과의 좁고 깊은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봉사 활동을 통한 이타심 향상도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최지은 더너미래 기자